

## 2009년 제1기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영

1. 일시 : 2009. 9. 3(목)~4(금) (1박2일)
2. 장소 : 교원청평연수원(경기 가평)  
가평군산림조합(경기 가평)  
아침고요수목원(경기 가평)  
국유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 (경기 양평)
3. 참석자(91명)
  - 회원(68명)
  - 독립가(23명)



### 4. 교육내용

#### 가. 이론교육

-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재료  
소경재의 활용 및 가공
  - \* 국립산림과학원 이동흡박사
    - 기후변화대응 탄소저장고가 필요
    - 목재를 이용한 토목건설 신기술
    - 하천 공법과 숲 가꾸기 산물 이용
    -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림사업 활성화제언 (목재가공활용)

- \* 우리협회이사.
- \*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 서경석
  - 임목선금제도 도입
  - 조림방식개선
  - 조기벌채 관리
  - 국산목재 고부가가치창출
  - 유통구조개선



나. 현장교육

○잣 및 목재가공 현장 견학



가평군 산림조합 잣 가공 및 목재 가공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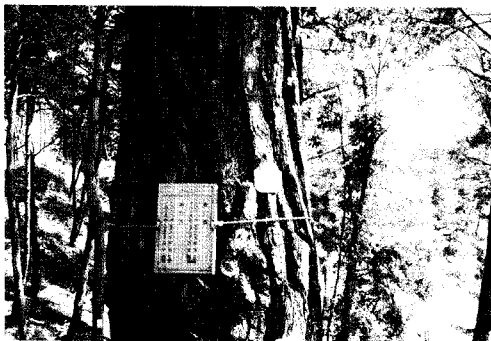
○야생화단지 수목원 견학



아침고요수목원

다. 산림경영사례 실증교육

○임지활용사례



양평국유림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



## 꽃송이버섯이 식탁으로 올라온다.

-항암, 면역기능을 높여주는데 탁월-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항암, 면역기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 글루칸 성분이 약용버섯인 영지나 상황버섯의 10배 이상 지닌 것으로 유명한 꽃송이버섯의 대량재배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꽃송이버섯은 우수한 약리성분과 쓰지 않은 맛과 향을 지니고 있지만, 재배가 어려워 국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어 왔다(건조버섯 1kg당 150만원 수준). 꽃송이버섯은 독감이나 각종 질병에 견디는 면역 활성을 높여 주는 베타 글루칸을 43.6%나 지니고 있고, 약용버섯으로 유명한 영지, 상황버섯에 비해서도 10배 정도의 성분을 지니고 있어 일본에서는 기능성 식품 또는 약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꽃송이버섯의 배양조건에 대한 연구 이후,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2005년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도(pH)의 중요성을 발견하였고, 이후 적정 수분, 밀도, 톱밥크기 등의 검정을 통하여 실용적인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어 멀지 않아 꽃송이버섯이 식용버섯으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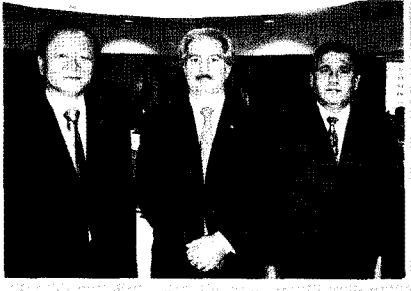
국립산림과학원은 전남산림자원연구소,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전북농업기술원, 농업개발연구소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꽃송이버섯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 산림청의 연구과제를 시작한 (주)비트로시스, 조선대학교, (주)파고다FS 등과 함께 꽃송이버섯의 기능성을 발굴하고 제품화를 하여 식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꽃송이버섯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꽃송이버섯 Workshop 및 시민들을 상대로 시식회를 연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방하는 홍릉수목원에서는 추석 일주일 전인 9월 26일(토) 꽃송이버섯 시식회가 열린다. 오전에는 꽃송이버섯을 식용버섯으로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대량재배기술을 소개하고, 야외에서 꽃송이버섯을 채집할 수 있는 비결, 꽃송이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소개한다. 정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리는 시식회에서는 실제 버섯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꽃송이버섯 차, 전, 튀김, 샐러드, 머핀 등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오후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도 견학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최완용)과 한 국립산버섯연구회(회장 구창덕)의 공동주최로 개최되고, 경북과 전남 산림연구소, 전북농업기술원, 조선대학교, (주)비트로시스, (주)파고다FS, (주)포천버섯개발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꽃송이버섯이 전 국민의 식탁 위에서 건강식품으로 애용되고, 신종플루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국립산림과학원 바이오에너지연구과 강하영 박사(961-2741), 박현 박사(961-2754)

## '한 - 파라과이' 산림협력 속도 낸다

- 산림청장, 중남미 산림자원외교 교두보 마련 -



앞으로 파라과이에서 우리기업의 조림면적이 늘어나고 목재바이오매스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7월 31일 파라과이 외교부에서 파라과이 또랄레스 산림청장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산림자원 이용개발 및 관리, 산림보호, 산림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한·파라과이 산림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우리기업의 조림투자 및 목재바이오매스 가공 산업의 투자 확대, 기후변화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등 양국간 산림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광수 산림청장은 파라과이 루고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와 '해외조림 확대 정책'을 설명했으며, 루고 대통령은 한국이 녹화에 성공해 'Green Korea'를 이뤘듯이 파라과이도 'Green Paraguay'를 만들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광수 산림청장은 파라과이에 이어 칠레를 방문해 칠레 산림기관장과 목재협회장을 잇따라 만나 우리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논의와 목제품 수출입을 통한 상호 윈윈전략을 모색하고, 칠레에 진출해 있는 (주)이건산업을 방문해 목재 펄릿용 조림 및 펄릿공장 설립 등 해외산림 투자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山林**

문 의 : 산림청 국제협력과 이현주 사무관(042-481-4081)

## 현해탄 넘어 핀 무궁화 사랑

- 윤병도씨, 벚꽃의 나라 일본에서 10여만평 동산에 10만 그루 무궁화 심어 -



광복 64주년을 맞아 지난 8일부터 무궁화 전국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벚꽃의 나라 일본 사이타마 현 치치부 시에서 30년째 무궁화 보급운동을 벌이며 10만 그루의 무궁화를 심고 있는 윤병도(79)씨 사례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윤병도씨는 거제시 신협읍 문동리에서 태어나, 20세 나이에 혈혈단신으로 현해탄을 건너가

특유의 근면과 검소함으로 토건업 분야에서 재산을 모았다. 모은 재산을 활용하여 치치부 시의 주변 산과 땅을 사서 10만평이나 되는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청소년 야영장 등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환원사업으로 지역에서 존경받고 있다. 미나노 무궁화 동산을 방문하는 일본사람에게는 무료로 무궁화 묘목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사이타마 현에는 고구려가 멸망하자 왕족인 약광과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마을을 세우고 새로운 삶을 개척했던 고려촌(村)이 있다. 왕족 약광이 세상을 떠난 후 고구려 후예들이 신사를 세우고 그를 추모하는 사찰이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윤병도씨는 무궁화 꽃이 만개하는 7월말에 무궁화 축제를 개최하여, 무궁화 꽃밭에서 고구려인 후손들이 우리 가락에 맞추어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고, 무궁화꽃에 취한 일본인 가족, 연인들이 무궁화동산을 거닐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일동포 윤병도씨가 일본에서 전개하고 있는 무궁화 보급활동 사례는 2009년 무궁화 전국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무궁화 심포지엄'에서 윤씨의 딸에 의해 소개됐다.

고기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무궁화는 유럽에서 ‘Rose of Sharon’으로 신에게 바치는 꽃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대만, 홍콩에서는 조경수, 관상용으로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꽃이다”며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민간단체와 함께 무궁화사랑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고기연 과장 (042-481-4223)

## 산림청, 한국산 송이버섯 일본시장 판촉 강화

- 산림청, 22일「송이 수출 간담회」개최 -

우리나라의 청정 소나무 숲에서만 생산되는 송이버섯의 수출확대를 위해 산림청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산림조합중앙회 회의실(서울 송파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송이수출업체, 산림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송이 수출 간담회」를 갖는다.

우리나라 임산물 중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꼽히는 송이버섯은 아직까지 인공재배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순수 자연산을 채취하여 수출하기 때문에 기상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매우 민감한 품목으로 작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올해 9월 본격적인 송이채취 시기에 앞서「송이 산 가꾸기 사업」과 관수시설을 확충하고,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송이 산 가꾸기 사업 실시요령」개정과 송이 채취 전문 임업인들에 대한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촉진을 위해 이번「송이수출 간담회」에서는 송이 수출업체 및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채취 및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토론했으로써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수출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송이는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새벽 및 공휴일 채취분에 대한 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 완화, 항공화물 우선취급 등을 일본정부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송이의 주 수출국인 일본에서는 최근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도를 우려해 청정 이미지를 가진 한국산 임산물에 대한 호응도는 높은 편으로, 산림청에서는 수출확대를 위해 오사카 임산물 판촉전(9~10월) 개최 및 TV 매체광고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물류비 지원, 업체정보를 담은 종합 카달로그 제작, 박람회 참가, 수출유망품목 지원 등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국제협력과 장민영 주무관 (042-481-4086)